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힘내라 대한민국

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0. 12. 2(수)	담당부서	기획재정담당관
담당과장	이승렬 과장(044-203-5520)	담 당 자	이동철 서기관(044-203-5516) 김아름 사무관(044-203-5517) 오용환 주무관(044-203-5517) 최영진 주무관(044-203-5518)

산업부, 내년도 예산 11조 1,860억원 확정

- 금년 본예산(9조 4,367억원) 대비 18% 증가 -

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,
②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및 미래먹거리 육성, ③ 수출 및 투자활력 회복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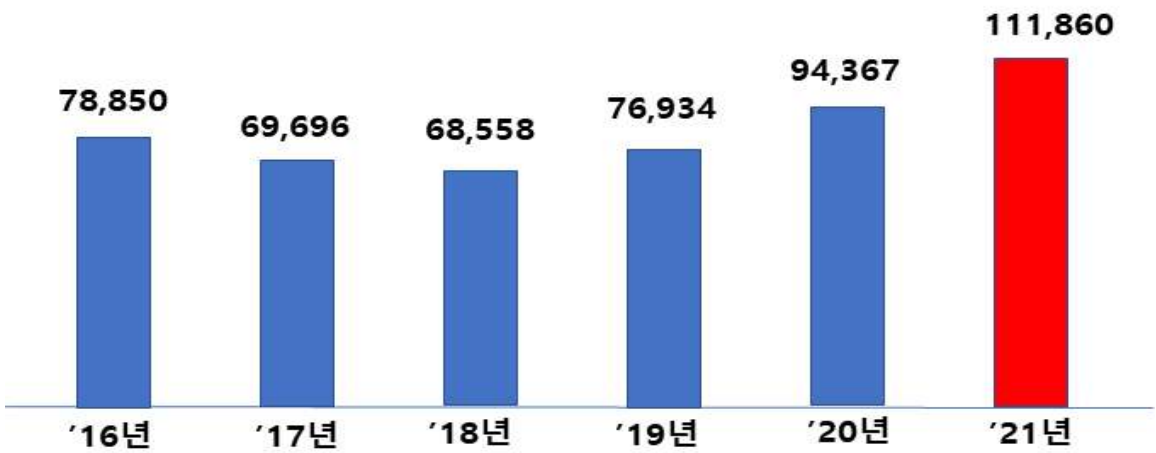
1. 2021년 예산규모

□ 산업부의 『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』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**총 11조 1,86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.**

○ 정부안(11조 1,592억원) 대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,167**억원이 증액**되었고, 1,899**억원이 감액**되어 268**억원이 순증되었다.**

○ 내년도 예산은 **올해 본예산 대비 18% 증가**한 것으로,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**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.**

< 산업부 연도별 예산 현황 (단위: 억원) >



2. 2021년도 산업부 예산안 주요내용

❶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

□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하에, **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조 2,226억원에서 내년 1조 6,71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.** ('20년 대비 36% 증가)

○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①**농·축산·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,** ②**산단 유휴부지,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,** ③**지역 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(주민참여 자금)** 등이 대폭 증액되었으며, ④기술력은 갖추었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**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(녹색보증) 예산**이 신규 확보되어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.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⑤**도시 내 유휴부지(건물 옥상 등)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** 사업이 신설되었다.

- 농촌 태양광 융자: ('20년) 2,285억원 → ('21년) 3,205억원
- 산단 태양광 융자: ('20년 추경) 1,000억원 → ('21년) 1,500억원
- 주민참여자금 융자: ('20년 추경) 365억원 → ('21년) 370억원
- 녹색보증: ('21년, 신규) 500억원
- 도심태양광 융자: ('21년, 신규) 200억원

○ 이외에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**한계돌파형 기술개발**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, **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**를 위한 R&D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. 또한 세계 주요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, **국내 신재생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**하는 예산 등이 증액 편성되었다.

-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: ('20년) 2,534억원 → ('21년) 2,839억원
-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: ('20년) 48억원 → ('21년) 69억원

□ **수소경제 조기 구현**을 위해 관련 예산지원이 강화된다.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**수소 생산기지를 지속 확대**해 나갈 예정이며, **수소 출하센터**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다. 또한 수소 유통 활성화를 위해 **수소 운송장비 구축(튜브 트레일러) 및 수소충전소 모니터링**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되었으며, 화석연료 대신 **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**

수소 기술개발 예산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.

- ▪ 수소생산기지구축: ('20년) 299억원 → ('21년) 666억원
- ▪ 수소유통기반구축: ('21년, 신규) 36억원
- ▪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: ('20년 추경) 40억원 → ('21년) 100억원

□ **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을 혁신**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확대된다.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,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**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ESS 설치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되었다.** 학교 주변 **전선·통신선의 공동지중화**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내년부터 본격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.

- ▪ 재생에너지계통수용 확대 공공 ESS 구축: ('21년, 신규) 182억원
- ▪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: ('21년, 신규) 60억원
- ▪ 전선로 지중화 지원: ('21년, 신규) 200억원

□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춘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여, **제조업의 친환경화**도 강력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원천감축을 위해 공정개선·설비보급을 지원하는 **클린팩토리** 구축 사업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으며, **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**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등을 증액 편성하였다. 이외에도 **재제조 등 자원순환을 지원**하는 사업들의 예산이 확대되었다.

- ▪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: ('20년 추경) 31억원 → ('21년) 203억원
- ▪ 제철공정 내 CO2 회수활용기술기술개발(R&D): ('21년, 신규) 58억원
- ▪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(R&D): ('21년, 신규) 50억원

❷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촉진 및 소부장·Big3 등 미래먹거리 육성

□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, **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**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 디지털뉴딜 관련 예산도 증액되었다. 우선 중소·중견기업들이 데이터·AI 기반으로 **벨류체인상의 문제를 해결**할 수 있도록 관련 R&D 사업이 신설되며, **주요 업종별 디지털 전환 시범모델 개발**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▪ 산업지능화 선도밸류체인 육성(R&D) ('21년, 신규) 76억원
▪ 산업디지털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 ('20년 추경) 15억원 → ('21년) 30억원

○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단에 **IT 등을 접목하여 스마트·그린 산단**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. 제조 데이터 기반으로 공정 개선 및 제품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자, **산단 내 혁신데이터 센터 설립**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, **스마트 제조 관련 인력 양성**을 위한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되었다. 또한 **스마트 물류플랫폼**을 구축하고, **IT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**을 설치하기 위한 산단 내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예산도 확대되었다.

▪ 산단 혁신데이터센터 ('20년) 30억원 → ('21년) 34억원
▪ 산단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 ('20년) 147억원 → ('21년) 350억원
▪ 산단 스마트편의시설 ('20년) 130억원 → ('21년) 285억원

□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**소부장 경쟁력 강화**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, 관련 예산 지원이 지속 확대된다. 내년도 산업부 소부장 지원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21% 증액된 1조 5,615억원으로 확정되었다. ('20년 산업부 소부장 예산: 1조 2,842억원)

▪ 소재부품기술개발(R&D) ('20년) 6,027억원 → ('21년) 8,866억원
▪ 소재부품기술기반구축(R&D) ('20년) 1,833억원 → ('21년) 1,954억원
▪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(R&D) ('20년) 1,005억원 → ('21년) 1,332억원

□ **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차 등 Big 3** 산업 관련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.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**반도체 설계기업(펩리스)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**을 강화할 계획이다.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, **범부처가 공동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R&D 예산**을 대폭 증액하고, **바이오 관련 사업화 및 인력양성 지원**도 확대하기로 하였다.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**자율주행 및 친환경차로 전환**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.

▪ 글로벌K-펩리스육성기술개발(R&D) ('21년안, 신규) 60억원
▪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(R&D) ('20년) 302억원 → ('21년안) 641억원
▪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 생태계조성 ('20년) 208억원 → ('21년안) 269억원
▪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(R&D) ('21년안, 신규) 200억원

❸ 수출 및 투자활력 회복지원

□ **수출 활력 회복**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여, 무역금융 및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 등이 증액되었다.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, 수출 중소·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**무역보험기금 출연** 예산이 3,500억원으로 확정 반영되었다. 이외에도 **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 제공** 예산이 증액되었으며,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 시대에 **기업인들의 국가간 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**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업이 신설되었다.

▪ 무역보험기금출연 : ('20년) 2,960억원 → ('21년) 3,500억원
▪ 수출지원기반활용(수출바우처): ('20년) 731억원 → ('21년) 817억원
▪ 기업인 출입국지원 : ('21년, 신규) 10억원

□ **투자 활성화**를 위해 투자 보조금 예산이 확대되었다.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국내 투자시,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현금지원 예산이 증액되었으며,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유턴을 활성화하고자 **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도 대폭 확대**되었다.

▪ 외투기업 현금지원: ('20년) 550억원 → ('21년) 600억원
▪ 국내복귀투자보조: ('20년 추경) 200억원 → ('21년) 500억원

3. 향후계획

□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, **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**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담당관 이동철 서기관(☎044-203-551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